

공로패 증정



권영권 보도부장, 권중달 총사연구위원장, 권영찬회장, 권필원 회장, 권한욱 운곡서원 사무국장(왼쪽부터)

권영찬 회장은 제50차 안동권씨 정기 총회에서 그동안 대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4명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권정창 제례위원장, 시조 태사공 춘추함제 봉행 시 제례를 주관했으며, (권한욱 국장 대리수상) 권중달 총사연구위원장 등에게 수년간 주축같은 칼럼을 연재하

고 특히 자치통감을 세계 최초로 번역하여 안동권문의 명예를 드높였다. 권영권 보도부장은 매월 발행되는 정보에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했으며, 권필원 회장은 태사문학회를 창립하여 (태사문학) 출간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권행완 편집국장

안동권씨 능동장학회 장학생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



안동권씨 능동장학회는 장학생 20명 (아래 명단)을 선발하여 안동권씨 대중회 제50차 정기총회에서 장학증서와 함께 각 100만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선발기준은 전년도 2학기 평균 성적 B학점 이상과 가정 형편을 고려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이름	성별	학교	학년
권근하	남	단국대학교 화학공학과	4
권나연	여	서울대학교 디자인학과	2
권다혜	여	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2
권도한	남	호원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4
권문수	남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학과	3
권민경	여	경북대학교 사범대 가정교육과	3
권선용	남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4
권세민	남	명덕대학교 문화예술학과	2
권수정	여	이화여자대학교 기후에너지학과	1
권순우	남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계열	1
권여정	여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유아교육학과	3
권용남	남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
권용현	남	중앙대학교 광고홍보경제학과	4
권우진	남	울산대학교 스페인, 중남미학과	1
권원민	남	대구한의대학교 IT의료데이터과학과	4
권윤민	여	선문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3
권진혁	남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권현서	여	한남대학교 융합디자인학과	2
권형진	남	초당대학교 항공운항과	4
권효정	여	부산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학과	4

안동권씨 며느리 이경자 박사 제55대 사임당

권혁홍(대양그룹 회장) 대중회 부회장의 부인인 이경자 제55대 사임당이 제56회 사임당의 날 행사에서 1959년 제1회 사임당의 날이 시작되고 최초로 연임됐다. 김천주 이사장은 그동안 한국어성소비자 연합에서는 5명의 사임당 후보자 중 덕과 예술성이 뛰어난 사임당을 발굴하려 노력했으나 선발하지 못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제55대 이경자 사임당과 그 바깥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없는 것 같다. 내년에는 사임당발굴위원회를 발족시켜 사임당과 같은 인물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곡과 같은 훌륭한 7남매를 낳아 기르고 훌륭한 여성상으로 신사임당을 주목하게 된 것이다. 한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의 대국이다. 그동안 눈부시게 발전했다. 빨리빨리 국민성 덕분에 남성과 여성도 이만큼 발전했다. 이렇게 잘 살게 되었으면 행복해야 하는데 행복하느냐 불만 없느냐 왜 이렇게 시끄럽나. 험뜯고 비방하고 자기만 알고 이 세상이 살벌하다. 신사임당의 예술성과 교육, 율곡의 철학을 담아 국민들의 가정교육을 부활시키는 운동가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 이 행사를 통해 내 역할과 내 할 일이 뭔지. 나는 무엇인지 성찰했으면 한다. 율곡은 엄마가 선생이었다. 신사임당과 같은 여성이 되고, 율곡과 같은 남성이 되어 부끄럽지 않은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천주 이사장은 축사에서 남성과 여성을 낳은 사람은 엄마다. 그래서 가정교육은 내탓이다. 그런데 손가락질만 한다. 자살율과 범죄율이 점점 올라간다. 사회가 혼란하고 가정이 불안하다. 국가의 기본단위인 가정교육이 잘 되고 있지 않다. 사회교육도 잘 되지 않고 있다. 모두 엄마 책임이다. 그런데 아무도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가정의 내 역할이 뭔지. 가정교육을 부활시켜야 한다. 가정교육을 부활시키는데 운동가로 앞장서야 한다. 경제보다 질서와 예의가 먼저다. 예의, 도덕, 윤리철학이 사라진 사회는 다 내탓이고 가정탓이고 엄마 아빠가 잘못한 것이다. 이 사회가 올바르게 가야 한다. 사회질서와 안녕이 중요하다. 남 험뜯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자식을 키워야 한다. 멀리 지방에서 오신 내외 귀빈께 감사드립니다. 1959년 제1회 신사임당 행사를 시작했는데 어렵고 힘든 때였다. 그때는 남성만 경제 사회활동을 했다. 6.25를 겪었고, 나라 재건하는데 여성도 한몫 써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했다. 그래서

권행완 편집국장

권영철 일본총친회장과 일본선수단



권영철 일본총친회장과 권승일 부회장 등 일본선수단 20여 명이 제33회 안동권씨 전국청장년체육대회에 참가했다. 지금까지는 권승일 부회장이 부인과 함께 참가했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안동권문의 분향에서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많은 족친들이 참여했다고 한다. 대회 하루 전에 안동에 도착하여 5월 4일 대회에 참가했다.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일본총친회는 능동제사 옆 시조 태사공 신도비 비각을 세우기도 하고 대중회에 위토로 김포에 눈을 사주는 등 그동안 대중회

동정

▲ 안동권씨부정공파 영해문중 후손인 권대원(權大源)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 별 3개를 달았다. 권 중장은 지난 2021년 6월 소장에서 2024년 4월 25일 약 34개월 만에 중장으로 진급, 제6대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으로 근무한다. 권 중장은 ROTC 30기로 임관하여 합참작전본부, 백두산부대 65연대장, 제1군사령부 경열과장, 2군단 작전처장,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차장 등 육군에서 중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권 중장의 아버지 권두호, 어머니 황차분의 고향은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관어대)이며 부모가 경북 구미시로 이사를 한 후 아버지는 구미에서 화랑사를 운영하였고 구미시재향군인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향원은 학사 장교 공군 중위로, 동생은 육군 대위로 각각 전역하는 등 이 집안은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이족이다. 권 중장은 구미초등, 구미중, 구미고등, 한양대학교를 각각 졸업했다. (권영권 보도부장)

회 총복지부장을 맡고 있다. 권 신임 회장은 지난 4월 22일 임시총회에서 중앙 회장으로 선출됐다.



▲ 권성욱 추밀공파 정현공 화산부원공 회장이 작년 7월 양주시민축구단 단장에 취임했다. 양주시민축구단은 프로축구 구단으로 3부 리그에 속한다. 50여 명의 선수단이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다. 권성욱 회장은 3회 역임했으며 현재는 자문위원이다. 동창위 권대항(權大恒, 24世)은 화산부원군 복(復)의 후손으로 선조대왕 11년인 정화옹주(貞和翁主)와 혼인하여 동창위 작위를 받았다. 오 위도총부 부총관(五衛都總府 副總管)을 지냈다.



▲ 권선아 한국골프대학교 교수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부 총리 표창을 받았다. 한국골프대학교는 국내 유일 골프 특성화 대학으로 권선아 교수는 2011년 3월부터 골프경기지도와 교수로 활동하며 골프인재 후학양성과 연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과 비장애인 학생들이 골프로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골프대학교는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과 첨단 교육 시설을 갖추고 있다.

▲ 권오형 삼덕회계법인 대표(대중회 부회장)가 경인일보 감사로 지난 3월 선임됐다. 권 오형 신임 감사는 부여고와 경희대 경영학과 (65학번)를 졸업하고 세무관리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공무하는 회계사로 1978년 회계사무소를 개업한 이래 회계사 외길 인생을 걸어왔다. 제29대 경희대 총동문회장, 제39대와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감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능동장학회 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안동권씨 정보에 상속에 관한 칼럼을 읽고 재미있게 연재하고 있다.

▲ 권병기 제천시이통장연합회장이 (사)전국이통장연합회 중앙회장에 취임했다. 사단법인 전국이통장연합회는 지난 2004년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조 직으로 전국 9만 5천여명의 이장·통장의 권익 보호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권병기 신임 회장은 제천시 이통장연합회장과 전국이통장연합



▲ 권운주(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추밀공파 매현공 증중 고문이 5월 5일에 열린 종묘대제에 영녕전 문종대왕과 현덕왕 후 위패가 봉안된 제6세 아현관으로 헌작하였다. 이날은 우천에 행사를 치르느라 헌관들이나 구경 온 관람객들도 매우 불편하였다. 안동권씨 대중회에서는 매년 제6세 아현관을 추천하고 있다.

부산총친회 제48차 정기총회 성황리 개최

부산총친회(회장 권영현) 제48차 정기총회가 5월 25일 10시 30분 부산직접사회관 대강당에서 4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권재영 사무국장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몇 가지 점에서 다른 총회와 달랐다. 먼저 주최측은 총회가 열리기 전 식전행사로 초청 가수들의 노래로 분위기를 띄웠다. 다음은 권영현 회장이 안동권씨 세계도를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시조 태사공부터 15파로 나누어 지는 부분까지 목청을 높이며 상세하게 설명했다. 권영현 회장은 시조의 아드님은 누구냐고요. 아들이 빛이 있었다고요. 시조의 손자가 빛이라고요. 몇 세에 가서 15개파로 분류되었다고요. 안동권씨 15개 파인데 먼저 수종공파(종차), 부호장공파, 추밀공파, 복야공파... 검교공파라고 설명하면 참석자들은 크게 따라 외치며 세계도를 학습했다. 또 다른 점은 종친회 회기가 입장하고 종시(宗是)를 권영현 사독했다. 이종애님은 누구냐고 하는 것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권문의 노래를 부른다는 점이다. 그것도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부녀회원들이 권문의 노래를 멋지게 부른다는 점이 다른 종친회에서는 볼 수 없는 부산만의 보기드문 풍경이었다.

김영호 사무처장, 권영욱 합천총친회장, 권영범 산청총친회장, 광산김씨 김철중 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부산총친회에서는 권성용 전 회장과 권영현 전 등회장에 공로패를 증정했다. 권민서와 권정근 및 권진성 등 고등학생 3명에게 각각 5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권영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이전에는 강당 계단까지 꽉 찼었는데 이제는 350석 좌석만 겨우 찬다. 더 분발해서 회원 확보를 해서 예전처럼 강당이 꽉 차기를 바란다. 내외귀빈과 사랑하는 종친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 시조 춘향제에 전세 버스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고, 안동에서 개최된 전국청장년체육대회도 참여한 바 있다. 청년회와 장년회 그리고 부녀회에서 적극 참여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부족한 점도 있다. 산학단체 신규 예전처럼 이 강당이 꽉 차기를 바란다. 내외귀빈과 사랑하는 종친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 시조 춘향제에 전세 버스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고, 안동에서 개최된 전국청장년체육대회도 참여한 바 있다. 청년회와 장년회 그리고 부녀회에서 적극 참여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 언젠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고 싶다. 이어서 권영창 회장은 축사에서 부산총친회에 꼭 와보고 싶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다. 좌석이 꽉 차고 내빈도 많이 오셨다. 다른 종친회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 아닐까 한다. 권영현 회장과 임원 여러분께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1100년



권영현 회장이 종친회기를 힘차게 흔들고 있다.



정학생에게 장학금 전달



권성용(왼쪽) 전 회장에게 공로패 전달



권영현 전등회에게 공로패 전달



부녀회, 참석자들과 안동권문의 노래 제창



권영현 전등회에게 공로패 전달

이 몇 년밖에 안 남았다. 집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자료를 꺼내서 역사 편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시조 영정도 제작하고, 유물전시관도 만들고 능동제사 주차장에 조경도 하고 모든 것을 바퀴 놓을 계획이다. 부녀회는 부산에만 있다. 이 조직을 키워 전국 조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용 전 회장은 격려사에서 바쁜 중에 축하하러 오셔서 고맙다. 부산총친회는 전국 1등 종친회로 소문나 있다. 항상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코로나19 무사히 넘기고 현 회장에게 물려졌다. 안동권씨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명문가이다. 남달리 돈독하다. 앞으로 유능한 회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침체에서 벗어나 부흥시켜 옛모습을 되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영호 수석부회장은 격려사에서 오늘 부산총회 정기총회의 날에 축하하러 오신 권영창 대중회 회장께 감사드립니다. 현 회장을 중심으로 최고의 종친회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길상 고문은 격려사에서 불원천리 100만 족친의 수장인 대중회 회장과 편집위원장과 편집국장이 오시고, 모내기로 바쁘신데도 합천과 산청에서 오셨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주김씨 부산총친회 김석조 회장이 오셨다. 반갑다. 나누어드린 자료 23-26쪽을 10번 읽어보면 보화에 대해 어디 가도 모른다는 소리는 안 들을 것이다. 부녀회는 종친회의 꽃이다. 건강하고 두루두루 소망한 일 잘 풀리고 가정이 평안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석조 회장은 누가 뭐라해도 양반 중의 양반이

안동권씨다. 다른 거 다 마다하고 이 자리에 왔다. 권길상 성씨연합회 총재하고는 친형제처럼 지내고 있고, 권철현 의원과도 학교 친구다. 거기다 외가가 다 안동권씨라서 더 좋아한다고 말했다. 김희정 국회의원 당선자는 남편이 권기석이고 36세이다. 며느리가 빨리 와서 일도 해야 하는데 432년 전 임진왜란 행사에 참여하고 오느라 늦었다. 자주 뵙고 편하게 대해주셨으면 한다. 반갑게 맞이해 주신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해 큰절드리겠다고 말하며 단상에서 내려와 큰절을 했다. 정기총회는 권영문씨의 만세 삼창을 끝으로 제1부 행사를 마쳤다. 2부 행사에서는 오찬 및 여흥을 즐기며 주최회에서 준비한 푸짐한 점포 추천으로 정기총회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안동권씨다. 다른 거 다 마다하고 이 자리에 왔다. 권길상 성씨연합회 총재하고는 친형제처럼 지내고 있고, 권철현 의원과도 학교 친구다. 거기다 외가가 다 안동권씨라서 더 좋아한다고 말했다. 김희정 국회의원 당선자는 남편이 권기석이고 36세이다. 며느리가 빨리 와서 일도 해야 하는데 432년 전 임진왜란 행사에 참여하고 오느라 늦었다. 자주 뵙고 편하게 대해주셨으면 한다. 반갑게 맞이해 주신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해 큰절드리겠다고 말하며 단상에서 내려와 큰절을 했다. 정기총회는 권영문씨의 만세 삼창을 끝으로 제1부 행사를 마쳤다. 2부 행사에서는 오찬 및 여흥을 즐기며 주최회에서 준비한 푸짐한 점포 추천으로 정기총회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권행완 편집국장